

지양 권시엔 中취엔쥐더그룹 회장 "본토 중국 요리맛 보여주겠다" (한국일보 2005.11.03)

지양 권시엔 中취엔쥐더그룹 회장 "본토 중국 요리맛 보여주겠다"

中 최대 국영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2007년 고양 차이나타운에 1호점

“한국에는 중국 음식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국의 맛은 없습니다. 진정한 중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한한 중국 국영 외식업체인 취엔쥐더(全聚德) 그룹의 지양 권시엔(姜俊賢) 회장은 3일 “2007년 완공되는 경기 고양시 서울차이나타운에 100평 규모의 취안쥐더 1호점을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엔쥐더 그룹은 중국의 전설적인 베이징(北京) 오리구이 식당인 취엔쥐더에서 출발, 양고기 징기스칸 요리점 ‘둥라이순’(東來順), 산둥요리 전문 ‘쓰촨파덴’(四川飯店), 이슬람요리 전문점 ‘홍빈러우’(鴻賓樓)를 인수한 중국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취엔쥐더는 지난해 4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TV로 중계돼 화제가 됐던 곳.

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 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녀가면서 ‘오리 외교’(Duck Diplomacy)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 20 여개의 유명 식당 브랜드, 200 여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억 3,000 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날 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옆 서울차이나타운 건설현장을 둘러본 지양 회장은 “차이나타운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며 “2007 년 차이나타운이 완공되면 100 평 규모의 뷔엔쥬더 1 호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그룹 내 식당 브랜드 가운데 한국인 입맛에 맞는 브랜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베이징 오리구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오리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지양 회장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한국 오리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는 이미 선진 관리 기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340 만 마리의 오리를 조리했지만 단 1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어 관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일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양 회장은 이날 서울차이나타운 건설 주관사인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와 합자의향서를 체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국내에서는 가맹점주들을 모집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할 방침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입력시간 : 2005/11/03 17:16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511/h2005110317133721580.htm>